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面

社說 映畵令實施에 際하야

一

지난 一月에 公布된朝鮮映畵令은 昨二十五日附로 그施行規則이 發布됨에따라 오는 八月一日부터 實施되게되었다。이映畵令의內容은 이미 本報에 屢次報道된바이어니와 昨年十月부터 內地에서實施된 映畵法의內容을 大部分 그대로 採用한것으로 映畵의製作、配給、上映三部門으로 나누어 製作部門에있어서는 製作業을 許可事業으로하여 統制를强化하고 製作者의 素質을 向上시키기爲하여 演出者、監督者、演技者 即俳優와撮影者를 모두登錄制度로하며 脚本을事前에 檢閱하기로하였고 配給部門에있어서는 配給業을許可營業으로하는同時에 上映部門에있어서도 興行者는 一興行에二百五十米以上의 文化映畵를 上映케하고 外國映畵는 上映畵數의 三分之一以下로 制限하고 十四歲未滿의 年少者를入場시키지안토록하며 上映時間도 制限하여 從來의 全然自由이던 製作配給을 統制하고 上映條件을 더욱 嚴格하게하여 敎化와宣傳에 偉大한 底力을 가지고있는 映畵를 徹底히 統制하려는 것이다。

二

映畵의 感化力이 偉大하다함은 贅言을 不要하거니와 天眞爛漫한 兒童들이 探偵映畵를보고 그흉내를내어 意外의犯行을 저질르는 實例를들때 우리는映畵의敎化上에 미치는影響을새삼스러히느끼게된다。一般은 映畵를一種의 娛樂에不過하다고보나 이映畵는 現代靑年男女들의 日常生活上 한가지 없어서는안될 必需條件으로도 新聞雜誌、라디오와 못지안케 偉大한 敎化力과宣傳力을가진것이 事實이다。따라서 映畵의統制如何에 依하여 그 弊端과 害毒을除去하며 社會의風敎를바로잡고 兒童의心性을陶冶할수있는것으로 어떤意味로보아 映畵統制는 絶對로 必要한것이라고 할것이다。

三

朝鮮의 映畵界는 從來物心兩方面으로 여러가지 制約을받어 文字그대로 荊棘의길을 걸어왔다 不折不屈、꾸준히 努力하여온것은 朝鮮映畵人들에게 敬意를表할바이나 그렇지만 한편 或은輕率浮薄에흘러 그들의傳統을 繼承치못하고 自滅의길을 밟은이가 없다고도할수없다。그리고從來에는 外國映畵에 눌리어到底히物質的으로 收支가맞지를않아 보다훌륭한 優秀映畵를製作하지못한것도 事實이다。그러나 이제 朝鮮에도 映畵令이 實施되어 製作도 許可制로되고 또上映에도文化映畵를 많이上映하도록되었은즉 朝鮮映畵製作에있어서는 從來보다 더욱有利(?)한條件이 製作할수있지않을가한다。勿論 監督、俳優等의登錄制、脚本의事前檢閱等이 若干映畵의藝術的意圖를 制約하는바도있지않을까 하나 映畵統制는 一大國策인만큼 그 命令에따라 어떠케 朝鮮映畵를 向上시킬수있을가、어떠케朝鮮의「로칼칼라」를 살릴수 있을가、하는 决心과 새로운覺悟로써 優秀映畵製作에 邁進하는것이 朝鮮映畵人들에게 賦與된 任務가 아닐가한다。

廿七日午前宮中에서 大本營 政府 連絡會議를開催
今後基本方針協議決定

【東京電話同盟】宮中內閣書記官長、武藤、岡部陸海軍省軍務局長은 廿五日午後三時半首相官邸에 參集하여 政府와 大本營과의 連絡會議開催에 關하여 協議한結果 드디어 廿七日午前十時부터 宮中에서 大本營及政府의 連絡會議를열고 我國今後의基本方針을決定하기로되어 이에關하여政府는 廿五日午後四時四十分 內閣書記官長談으로써 左와如히發表하였다

來廿七日午前十時부터 宮中에서 大本營及政府連絡會議가 開催될터이다 그리고今後同會議의 幹事役은內閣書記官長及陸海軍省軍務局長이 이에當하기로함

卅九名遂民政黨脫黨
總裁現狀維持策에異見

【東京電話同盟】民政黨有志代議士會는 二十五日午後六時부터 丸內東京會館에서 最後的會合을開催하고 永井柳太郎氏外 三十六議員이 出席하여 民政黨總裁는 政界의現狀打破에關하여 吾人과 信念을달리 한다 內外未曾有의 重大時局에際하여 一黨一派의 立場에拘泥하여 擧國體制의 實現에 協力을 回避하려함에 吾人은 斷然脫黨하는바이다 吾人은 吾人의信念에따라 民政黨을脫하여 天下同憂之士와함께 日本再建의大業에 邁進하려한다 는 脫黨宣言과함께 左의三十九名脫黨者氏名을發表하였다

長野高一、駒井重次、山田清、中村梅吉、中村三之丞、池本甚四郎、粟屋新九郎、中山福藏、田中萬逸、松田竹千代、野田文一郎、野田一郎、松井郡治、多田滿長、山本粂吉、森下國雄、松本正一、長井源一、服部英明、山田順策、古屋慶隆、村松久義、北原阿智之助、林平馬、菊池良一、齋藤貝浦、永井柳太郎、富田荘一郎、藤田若水、吉田賢一、大山道襄一、木原七郎、作田高太郎、西田郁平、眞鍋勝、岡野龍一、末松晋一郎、長野綱良、愛野時一郎、平代木隆吉

町田總裁에게 提示한 質問書에 對하여 黨으로부터 野田文一郎氏에게 回答文을 通達하여왔다 그러므로 同氏等七代表는 同午前十一時부터 丸內丁倶樂部에서 會合協議한結果 回答文은 接受할것이 못된다고하여 다음聲明을 發表하는同時에 午後五時부터 東京會館에서 開會한 有志代議士會에서 聲明書를 發表하고 永井氏를筆頭로連袂脫黨하기로되었다

聲明 [illegible]

【東京電話同盟】民政黨의 櫻井幹事長은 二十五日 午後十時 新政治體制促進에 關한 民政黨有志代議士會의 代表委員으로부터 [illegible]

◇……海軍旗를 先頭로堂堂進擊하는 西林部隊……◇

"余는落下傘部隊"
永井柳太郎氏脫黨辯

[illegible]

飛躍的解黨
中島派最後態度決定

【東京電話同盟】政友會中島派는 二十五日午後一時부터 總務會、[illegible]

成都에大火
荒鷲空襲偉效發揮

【香港二十五日發同盟】[illegible]

郊外로移轉
在重慶外國公館

【香港二十五日發同盟】[illegible]

鎭海附近空爆

【○○基地二十五日發同盟】[illegible]

大野總監歸任
鮎川總裁도同行

【下關電話同盟】[illegible]

前內閣方針踏襲
明年豫算編成 今日閣議에附議決定

【東京電話同盟】明年度豫算編成方針은 去五日前內閣閣議에 [illegible] 決定하기로되어 [illegible]

外務人事刷新
次官第一候補白鳥氏

【東京電話同盟】松岡外相은 就任以來 먼저省內人事의 一新을 斷行하여서 外交陣營의 刷新을 圖謀하려고 [illegible]

「帝國船舶」創立

【東京電話同盟】帝國船舶의 創立總會는 二十五日東京會館에開催되어 [illegible]

代表取締役 寺井久信(郵船)
取締役 香春敏夫(商船)
〃 山本太郎(山下)
〃 佐佐木周一(三井)
〃 荒木忠雄(國際)
〃 松井酒治郎(三菱)

各師團管區名稱
所在地名을使用

【東京電話同盟】陸軍에서는 八月一日부터 實施할 北部、中部、西部、東部、四軍管區의 設置에따라 各師團管區及聯隊區官制를 一部改正하기로되어 二十六日附官報로서 陸軍省令을 公布하여 陸軍管區表를 改正하기로되었다 [illegible]

商相秘書官發令

【東京電話同盟】商工大臣秘書官은 二十五日附로 다음가치發令되었다

任商工大臣秘書官 有馬英治
商工大臣秘書官 山形武夫
依願免本官

人事·集會

▲韓熙錫氏(朝鮮總督府事務官)
▲今井賀代志氏(日本産金振興株式會社社長) 新任人事次廿五日來社

羅國首、外相 伊首相과會見

【羅馬廿五日發同盟】羅馬尼亞의 [illegible] 首相、마노이레스크外相은 廿[illegible]

市況

釜數操短案
養蠶聯强硬히反對

【東京電話同盟】蠶絲價安定對策 [illegible]

更히一個年延長
土地家屋等에도抑制策
商工省에서協議進行中

【東京電話同盟】一般物價를 凍結하여 [illegible]

九·一八停止令

[illegible]

一般豫想과反對로 綿製品輸出不振
鐘紡總會서津田社長演說

【東京電話同盟】二十五日 鐘紡總會席上에서의 津田社長演說要旨는 左와如하다 [illegible]

糸價漸落으로
政府遂買出動

【東京電話同盟】絲市는 十二日 [illegible]

蛇の目ミシン
帝國ミシン株式會社朝鮮中央店
京城府本町二丁目八十五番地
直營分店全鮮七十個所
裁縫하기쉬운미싱 사기조흔月賦
廣告

內地人과가튼이름으로 改姓改名 이름을짓는法
姓名과運命의神秘的關係、姓名學과字劃字音의關係

代書人不必要 證書·願屆를쓰는法

法律은處世의護身器 辯護士不必要 法律의相談相對

便紙는이러케쓰는것고 대로所用되는應用自在 便紙쓰는法

雄辯은處世의秘訣 式辭演說人事座談

算盤의世上 珠算의自習熟練法

靑年男女의寶典 結婚前後의知識

帝都出版社

빈대驅除藥 メッチウ
새로운學理끈힘업는硏究에依해서完成된 タイアン의 빈대驅除藥 メッチウ
이러케効力이잇는빈대驅除藥이지금까지잇섯든가
아니꿈에도몰낫든일이다
メッチウ를散布하여야만빈대의襲擊을방지안코安眠을할수잇다
メッチウ가잇는家庭에빈대가잇슬리업다
어말은メッチウ를한번使用하여본婦人들의말씀입니다
定價 四十瓦 五十錢 百瓦 一圓
製造元 東京 京城 大安商事株式會社 タイアン驅虫肥料研究所
朝鮮代理店 京城府南大門通二 株式會社 新井藥房 京城府南米倉町 株式會社 辻本商店 淸津府浦項洞 株式會社 淸津新井藥房

小兒의설사와 消化不良에 ベービー散
全朝鮮各地藥店雜貨店에有함

旭川水位를標準으로 水防非常對策確立

危險切迫할때마다警鐘警笛을連打

避難所二十八個所도指定

船舶損害六十五隻

慶南颱風被害甚大

求禮에颱風禍

電信電話不通、停電騷動

慶北颱風禍

細民層에住宅斡旋

典農町에分讓地計畫

十四萬坪에公園、學校、市場等을施設하기로

府當局明年度豫算에再計上

金剛山에暴風雨

探勝道路도破壞

連山地方에 暴風雨

鍾路뒷골목暴力團패

龍山署管內移動行悖

姦通罪에關한 非常上告事件

自判無罪로判決

家賃橫領한傭人

遊廓에서豪遊中被捉

總督府에情報部

勅任部長下에調査、宣傳、精動의三課設置

兵站基地로서의使命을完遂

雪嶽山探險團發程 八月二日로延期

天候關係、山路復舊等을考慮

本社主催

遠征中止理由

AAU許可遲延

손님친運轉手

自動車타고逃亡질

損害萬五千圓

燒失한楡川小學

"食品會"를新設

食料品配給確保

府民生活安定策으로

劇團「金星座」서

金谷青訓에百圓寄附

日、泰航空機

海中에不時着

乘客五名은輕傷

仁川稅關長等

海州港視察

理科教員講習會

京城、平壤、大邱에開催

砂糖配給압두고

關係官會合熟議

名案못엇고無爲散會

京保商惠會定總

自動車火災

進行中突發、天鑛火

터널지내가다가

汽車에轢死

三兒生產코

母女는死亡

鮮鐵軍惜敗

對滿洲國野球戰

中等野球中部豫選

養正、中央各勝

慶應優勝

中等野球北鮮代表

咸興商業決定

慈山小校勤勞奉仕

降雨로延安交通杜絶

法律을모르기때문에當치안흔悲劇

辯護士는處世의護身器

不要의法律의相談相對

本年世界陸上界의二大收穫

運動界人事·集會

廣告

今日…雲時時晴…

病나기쉬운여름

누구나特別히 健康에注意하시요

더위, 땀, 장마, 等은 醫學上 生理的으로 사람의 五臟 六腑를 녹이며, 살을깍그며, 血을 말니고, 氣를 傷하며, 쉬 늙게 하며, 陽氣를 푹 푹줄이며, 健康을 極度로 害합니다

●虛弱이過度하면…… 百藥이無効하오니

●여름철에補藥한劑 꼭 써야 합니다

●天下에 補藥이 數百種이로되

●百補丸以上 더조흔補藥은업습니다

證據

一、京鄕官民을勿論하고 百補丸의 効力이第一이라하며

二、京城四大郵便局員에게 물어보아도 百補丸의發送小包數가他藥房보다 十倍 百倍라 합니다

世界的代表名藥

百補丸

婦人百補丸

藥價 百補丸一劑十圓 婦人百補丸一劑七圓 少年百補丸一劑五圓

無料進呈

三腎大補丸

●陽氣專門藥

男子다운男子가된다

藥價 一劑二十圓 半劑十圓

자랑하는百補丸의効力

京城堅志町一五一 平和堂株式會社ビル 百補丸株式會社

中部版

하루損害千五百圓

長霖이繼續되어荷役不能!

滯船料에會社側悲鳴

【仁川】 한달이나 줄기차게 오는 장마가 ... 계속하여 인천항부두에는 매일와 이천여톤 ... 각기선회사에서는 노파가고 잇다

侈奢品禁止令에

在庫品處置에頭痛!

【仁川】 사치품의 ... 인천부내의 상가의 영업에 ... 큰 손해를 면하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

理髮料花代等 引上要求遝至

木炭飢饉에對備

仁川府와警察當局서

産地에入荷를斡旋

出征兵士의 農事를助力

郵便所增設運動

開城府會서陳情決議

【開城】 ... 八月一日부터 開城電話申請接受

防空模範區

榮山浦에選定

大和町道路鋪裝費 一萬二千圓削減

開城府會서豫算更正

光州商議所新案

黑石町六十九萬坪

住宅地區로區劃整理를申請

高橋府尹에陳情書提出

少女가溺死

自動車에乞人重傷

全北道、一元的으로

配給機構를整備

物資配給의圓滑을期코자

慶北平野再浸水

社會事業大會에 崔有山氏出席

水泳武道練習

苗不足으로 豊山移秧未了

赤痢와腸窒扶斯

한달동안에百廿一名

〃베루〃 빼고자다가 二名이慘死

雲天繼續으로 農作物被害莫大

土地賃貸價調査

平壤稅務監督局待機

殷山서眞瓜 一個十五錢

鐵道從業員療養所

龍岡組와隨意契約?

鐵道局의買受慫慂에 非合同側또말성

十七業者를反對聲明

雨量九百三十粍!

被害額이三十七萬圓

開豐郡水害全貌判明

橋梁破損卅個所

自動車線은全部杜絕

朴淵領井浦間等六處가不通

大麻를擔保로 兩金組서金融貸出

槐山에長霖으로

稻熱病이蔓延!

鐵川第二小學校 學父兄會開催

十年勤續教員 徳山教育會서表彰

害蟲과稻熱病

務安郡서驅除督勵

綿織物類傳票制後에

染色것이안팔려

小賣商人處置에頭痛

十一年前에잃은 아버지搜査願

生後一週된嬰兒를 樹林中遺棄

長霖後의衛生團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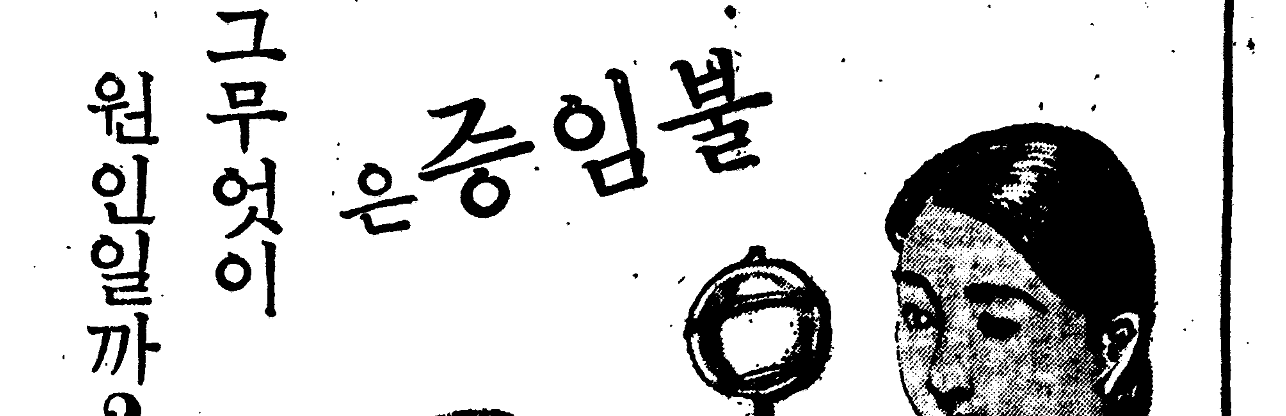
仁川十八萬府民에注意要望

洋服專門窃盜被逮

筏橋地方에 赤痢猖獗

校名變更

校舍도移轉



인 ... 그 ... 근 ... 부 ... 또 ... 그 ... 현 ... 주

全國各帝國大學病院 婦人科使用婦人病藥
와세돈球
약주문하시는방법
藥價 十二日分 ... 一圓二十錢 二十四日分 ... 二圓二十錢 三十六日分 ... 三圓四十錢
東京市 ... 河原商店

丹頂チック
手にとれば純白の容器 使へばスッキリした整髮感!
파리-製보다나은 國産品最高基準品
金鶴香水株式會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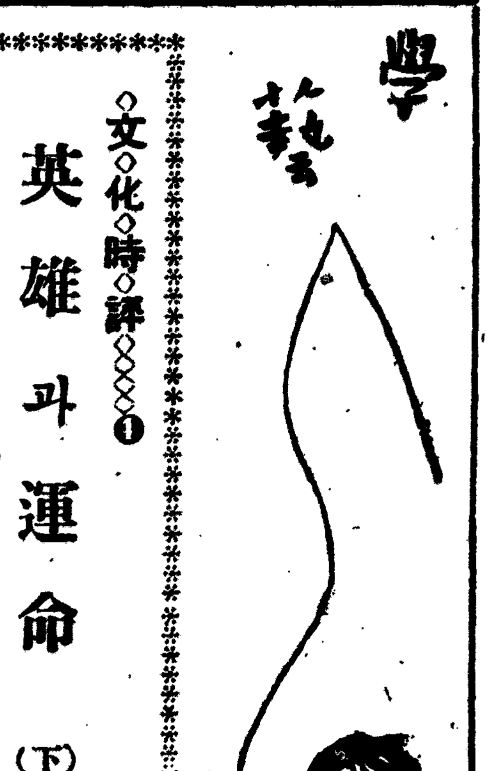
全身이미끈하고 皮膚美로 가렵지않게
藥價 一圓 三十錢 五十錢
發賣元 東京 神田

ウテナクリーム
國產最高品
純質無脂肪性
色黑·脂肪類解消에

書籍目錄
無代進呈

小兒의설사와消化不良에
ベビー散
베 - 비 -

學藝



◇文◇化◇時◇評◇◇◇❶ 英雄과 運命 (下)

尹圭涉

徐寅植氏는 上記의 論文가운데서 『英雄的個人이나 民族의 生涯는 모두 運命的인 意味를가진다』는것을 말하엿스며 『英雄의 生涯가 運命으로 點綴되는것은 行爲로서의 歷史가 元來 運命이기때문이라』고 하엿다。歷史가 元來 行爲와 存在、自由와 必然의 對立的統一이기때문에 歷史的인것은 모두 運命的인 性質을 띠는것이란」고 하엿다。그리고 氏는 다시 最近에잇서 運命을 [illegible] 文藝論(六月號)이란 獨立된 項目을 내세워 運命에對한 氏의 綜合的所信을 披瀝하여 어데까지나 運命에對한 氏의 關心을 보여주고잇다。

이가튼 運命意識은 氏에잇서서뿐만아니라 三木淸氏가 [illegible] 에 잇서서도 로고스와 파토스 [illegible]

存在) 와事實 客觀과主體 等의 所謂氏의 人間學的 思想體系에 固有한 基本概念과함께 運命에의 言及에 자자다고본다。三木淸氏의 運命論을 集約的으로 表現한다면 『人間은 그의 生에잇서서 運命의 意識을 [illegible] 잘머지게되면』 運命은아니다。로서 偶然的인것과 必然的인 것과의 辨證法的統一에잇서서 成立되는것이며 人間의 主로 行爲的인데서 運命의 『出來事』로서의 意味를 갓게되며 『오히려 그것은 運命을 克服할 可能性을 가지는者에 잇서서만이 運命은存在하는것이며 따라서 運命에關한 決定論인 宿命論은 無意味하며 『도리허가장 創造的인것이 가장運命的인것이다。』 그리하야 運命은 人間이 歷史的인것이며 運命이 人間에잇서서 客觀에서主體에의 超越에도 媒介되는데 또한人間이 運命을 克服하는 可能性이 주어지게되며 따라서 어

技術) 어라는것이 人間에 잇서서 支配的이意味를 띠게되며 나아가서는 外的運命의 內的運命에의 克服이 可能하게 된다。따라서 우리들은 自己形成에잇서서 運命에 對한 正當한 關係를 認識할수잇는것이며 그것은 또한 世界形成에 參加하므로써 遂行된다는 것——氏의 論旨의 槪要이다。

여기에잇서서 氏가 『가장 創造的인것이 가장 運命的인것이라』고 生覺하는 點은 努力하는 生에 있어서의 『人間은 努力하는 限』 迷惑하는것이란」는 말과 함께 運命을 理解하는데 異味있는 命題라고 生覺되나 氏가 運命이란것을 偶然的인것과 必然的인것과의 辨證法的統一『로 生覺하여 『單純히 偶然的인것은 運命이라고 할수없다。同時에 單純히 必然的인것도 運命이라고 할수 없다』고 하는 것은 運命의 [illegible] 的인 것을 [illegible] 永久不變의 運命이라는것이 人間에 있어서 [illegible]

意味) [illegible] 徐寅植氏가 三木淸氏의 外的運命과 內的運命의 區分을 [illegible] 主觀의 [illegible] 運命이란것 [illegible] 에서 永久不變의것이라고 본다。事物을 認識하는 主觀의 方式이란것을 肯定할수잇다。運命의 意識은 現實히 人生에잇서서 어떠한 受動的狀態에 노여게될제 갓게

되는 人間의 意識이며 [illegible] 그러나 우리는 그와 反對의 [illegible] 에잇서서 能動的인 狀態에 노여잇서서 [illegible] 運命意識은 [illegible] 그 性質을 [illegible]

想定) 할수업을것인가。우리는 現實的으로도 그가튼 [illegible] 우리가 [illegible] 보한 狀態에 잇슬제는 그가튼 運命이란 運命 [illegible]

主觀) 에 [illegible] 거나 적어도 그것은 [illegible] 可能性을 [illegible] 人間社會의 法則的 客觀的으로 [illegible]

가 [illegible] 그러나 氏도 어느 [illegible] 外界의 [illegible] 運命意識 [illegible] (完)

漢詩募集

滄東考選

題 螢火
押 微韻部
期限 八月十五日
(學藝部)

【隨筆】 柳京雜感 ❶

崔明翊

『柳京隨筆』을 쓰다는지도 꽤 오래다。只今 겨우 붓을 들게되는것은 本是 이러저러 말하자면 無事奔走한데다 『이歲月』에 집을 짓노라니 더욱 겨를이 업는 탓이다。世上事 不如意事 十之八九를 언제 무슨 일엔들 안느겼스라만 『이歲月』에 집을 짓기처럼 不如意한 노릇은 업을것이다。都大體 『이歲月』에 住宅을 지으려는것부터 잘못인지 모른다。세멘트 材木 사람(人夫)무엇무엇 [illegible] 못한 『돈』까지도 떨리는 때라 『돈』을 주고도 必要한 것을 가리마추기 어려운 것이다。以前歲月가티 『돈』만잇스면……그래서 『돈』이 第一

어지─。하든 思想의 風俗으로는 도저히 [illegible] 理解될수도 업는 新風潮도서、只今 하도 천대 밧는 『돈』을 同情하는 나마에 一種痛快한 느낌도 업지안하。그만치 困難을 겪거서 그런지 나는 왜 何必 여기(平壤)에다 집을 짓는가? 그보다도 大體 집은 왜 짓는가? 이런 生覺을 때때로 하게도 되는것이다。

그러대 困難을 염떼서 보기에도 딱해든지 어떤 親舊는— 그러대도 지어만노면엿 말하며 살지안호리—。하는날 조차、勿論 나를 慰撫하는말인줄 알면서도— 나는 옛날을 하도록 이집에서 사라야 하는가? 고 알궂게 색여 듯

게도 되는것이다。적으나마 내살림에 맛도록 設計하여 집을짓노라면 서(許—決코 高樓巨閣이란다 번적한 文化住宅을 想像한다면 그것은 讀者의 誇張이라 나는 그責任을 질수는업다)나는 이집을 지으로아 다)나는 짓는다는것보다 집을 짓으려는 생각에 나는 이집에 때에는 아닐까? 마 잡히고 언집에 나 生覺을 되는 것은 [illegible] 치植物처럼!이런 生覺을 하게되는것이다。

사람이란 世上에 태여난것부터 나오고십어 나온것이 아니요、그러니 어떤父母 어떤 家庭을 가릴여 태여 낫을 가업고 따라서 어데 사는냐 것도 그곳이 조와서만 살게되

는것도 아인樣이다。그先代도 그先代도 그래온것이지만 제父母와 그家庭이 잇는곳에 태와나면 의례히 竹馬友가 生기고 同窓之誼가 생기고 어릇이 되어가면 사실 [illegible] 家族이 불어가고 子息나어 그곳 學校에보내게되고게다가 자리잡힌 家族이 점점 [illegible] 一家의 生計를 總計하여 노면 여 간한 事情이 아니고는 一家솔을 우리채 뿌리를 뽑아가지고 他鄕으로 떠나갈수는 업는 模樣이다。

殷成한 자리를 떠러 생각과 자리를 뜨기면 새境地의 展開를 바랄수잇다손치더래도 누구나 천사리 果斷진 못하는것은 俗所謂 먼데 단념이보다 다가까운 손녕이로 滿足하

려는 新思想이아니라 한뻔자리잡은物體의 力學的慣性이 그들의 自由意思를 拘束하는 모양이다。그래서 사람들 ㄷ 혼 여 植物과 가치 土着해버리고 마는것이 아닐까。

—여긴 우리 할아버지가 나무라는데— 하며 自己집 뜰앞의 정자나무를 쳐다보는 村老人에게—이洞里에서 멧代를 사랏나요 다른 테가서 사람을 [illegible] 서요? 무른즉—웬걸 나이 七十되도록 엇떼 平壤구경도 못한 내가……하는것이엿다。

그때 나는 壬七、八十의老人을 [illegible] 하고 놀랫다기보다 그老人이 그렇사나우의 孫子가 [illegible] 일으켜던것이다。그村老는 누가 한쌀이지만 그리운

혹시 夫午를 일코 차즈러 나가는 길에 只今엣 第一크러만 [illegible] 自己 방보다 더 [illegible] 世上을 [illegible] 그러타고 그村老가 不幸하나 하면 반드시 그러치도안코 模樣으로 여기저조라 저기가조 타하두 그저 제바람 떠러신 데가 第一이거든—하는것이 로 미루어 그村老가 當身그 곳을 떠나야할 경우라면 오히려 不幸한것이엇다。마치그의 애놋가 쉬엿다는 정자나무을 只今떠옮긴다면 十七八 九 枯死를 숨하가 잇슬것가 첨。

當選漢詩

滄東考選

祈雨

二等之一 平北龍川郡外上面邑下洞 白弘銘

祈雨邇來一十年
何曾旱魃似今然
祝辭纔能桑林野
望眼欲穿雲漢天
不有恩波及時刻
安知靈驗在山川
舞雩壇下歸家客
但願途中濕袂連

研究 盛夏土俗數題 ❶

鄭庚鉉

[illegible] 俗信 [illegible] 生活의 [illegible] 求하는 남어지 人類以外의 物體와 [illegible] 을 [illegible] 하려는 結果 신앙의 [illegible] 現象이 잇게되어 [illegible] 巫俗、迷信 [illegible] 이 巫術 [illegible] 또한 [illegible] 原始的 [illegible] 그 一 [illegible] 民俗學的 [illegible] 生物、天 [illegible] 一般 [illegible] 이것이다。그리하야 俗信은 [illegible] 的、陳 [illegible] 나 [illegible] 그리고 俗信의目的은 [illegible] 生活의 [illegible] 能 [illegible]

흔히 일러알하길 世上은 [illegible] 一般的 [illegible] 하나의 不安과 恐怖 [illegible] 따라서 이不安과 恐怖를 [illegible] 求하기 [illegible] 하여 온갓 [illegible] 을 다 [illegible]

이제 [illegible] 者는 이 俗信의 [illegible] 影 [illegible] 由來 [illegible] 端 [illegible] 土俗 [illegible] 의 [illegible] 이 [illegible] 俗이란 鄕土의 [illegible] 俗 [illegible] 信의 [illegible] 小地方的 [illegible] 이 아니라 그 [illegible] 더 [illegible] 的國 [illegible] 이라 [illegible] 지 [illegible] 慣習 其他 民間信仰、慣行 [illegible] 이다。

流頭 五月이라 단오절…… 六月이라 流頭節……等、뭐뭐라한 俗謠에도 잇는지

長篇小說 青春茂盛 (115)

李泰俊 作 鄭玄雄 畵

罪와罰 (5)

형사는 본새에 긴여 엇다。은행을 나서자 곳 청루당 건너편 에잇는 파출소로 갓다。연급실 안에서 대금을 가져가 때문 에 본에에 전화를 걸고 청부순 사를 [illegible] 기다리기 [illegible] 오게하엿다。독주와 십만원과 자동차 도 경 판 세명에게 호위되어 본서에 로왓다。

몸에 어디 험접이 잇고 업 는지、큰니가 잇고 업는것까지 조사하더니 주소와 성명과 나 이를 적엇다。그리고나서 옷에 달린 끄나풀이란것은 모조리뜯 어버리는 것이엇다。고를잇는데 살을 여미기가 바쁘게 드을 매 다 밀엇다。

『이리 완』 여자 유치장은 여러방이 업 섯다。바로 도지꼬가 잇는 방 이엇다。

『아니! 다마상?』 『……』

독주는 그새 새하야케 세인 [illegible]

『이게집 뒤에 어떤 놈팽이가 반드시 잇을게다! 여편더니 는데가 사업 어쨋고 십만원 어쨋고、다 횡설수설이다。여 명나 [illegible] 고 찌고 내돈을 [illegible] 어떤 [illegible] 해노야 하지 [illegible] 뭐야! 이연놈을 어디보자!』

경찰서에서도 개집 하나이 [illegible] 간으로만 불리가 업다。그래。그 가상의 남자를 노칠가보아 득 주를 즉시 끄러내어 조치는것 이다。

독주는 업는 남자를 대이는 수는 업다。그러나 고문(拷問) 이 견딜수 업서 침하면 아모 이름이라도 대이고 우선 빼가 으스러지는것을 면하려는 본능 이 나오는다。

『이년아? 그럼 그녀석 어뎃니?』 『……』

『빨리! 그녀석 다리날 길이 잇을술 아니? 다 수배되서 ? 빨리 어댈려나?』

『업는 사람을 죽긴다구 나와

도지꼬의 손을 덥석 잡을뿐、아무말도 하지못한다。

『웬일요?』 『……』

독주는 그제야 눈물이 일지 에 쏘다저나왓다。그제야 집안 식구들 생각도 낫다。

『다마쌍? 너머 소리 냄 순 사가 와 지랄이라우! 근데 웬일요?』

그제야 독주는 도지꼬 이외 에도 두사람이나 다른 여자가 잇는것을 깨달엇다。

겨우 우름을 진정했슬때다。순사가 오더니 덜그럭 저리고 문을 열엇다。

『다마쨩을 만나자 마자 내가 아마 재판소루 너머가나봐!』 하고 도지꼬가 누이 동그래서 스나、순사는 『최독주』를 불 러낸다。나서기가 바쁘게 팔을 묵겻다。독주는 입술이 새파래 서 도지꼬를 돌려보앗다。도지 끄 역시 정청 안에서 파랑파 랑 떨고 잇섯다。

『최수의길?』

독주는 비로소 죄수로서의 자기의 현실을 분명히 인식해 본다。

유치장이가 느슨히 잠을 깨 여 독주가 갓스되 자기의 소 질수를 두장이나 떼여가지고 갓것을 알기는 오줌 입다가 그 소절수 든 케―쓰가、바른 편 안호케트에서 외편으로 옮 겨졋음을 깨닷고 꺼내보앗기때 로 본서에 알리고 덤비것은 문이요、또 거기서 닥장 전화 동의 맥수도 오십만원 이내에 서는 마음대로 찌을것이 무서 운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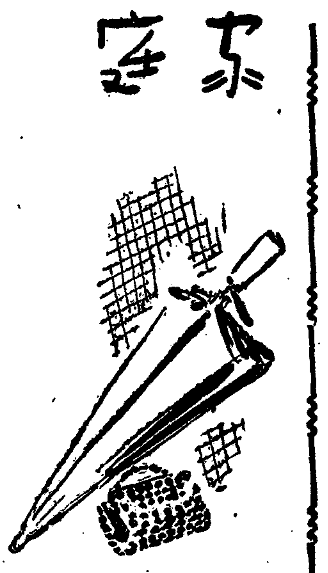
『이년이 아직 물이 덜된거로 군』

하고는 다시 멧배의 모진 문이 시작된다。정신이 아득해 지면 또 아모의 이름이고 불 러워진다。워낙 급해서 불러워 지는 이름이라 어제 지어서대 에서、얼른 나와지는 이름이면 일 여유가 업다。아모고、기억 불리버린다。그러면서도 독주는 와싶까바 피곤을 입술을 악 물고 [illegible] 『원치원! 오오、원선생님!』 독주는 새로운 눈물이 쭈르 르 흘럿다。세상에 나와서 야 심 없는、순진한 인정이라고 바 르 원선생에게서 처음이 엿다。그 만흔 사랑은、자기의 애욕과 보드쳐 한때는 오히려 자신을 악독한 여자로까지 몰엿섯스나、원선생의 순전한 인정의 사랑은 한줄기 끄치지 안흔 생명이 되어 목주의 마 음 속을 흐르고 잇섯다。 [illegible] 애욕도、여해도 돌보지안코 나 서는 의기는 어 끄칠줄 모른 는 생명에 그의영혼이 분단이 씨기 때문이엿다。독주는 마 음 속에 부르지젓다。

『오、원선생님! 절 격려해주 십시오。얼마든지 견디겟습니 다。다시 자유스러운몸이 올첩 니다。난 아직 젊습니다。내 하려던 일 낙심안습니다!위 대한 일 해낼수 잇도록 하 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시련 인줄 밋습니다!』

독주는 혀결 아픔을 참을수 잇는 힘을 어덧다。

家庭



여름화장은 자연스럽게

흉내만내지말고산뜻하게

요사음 짓한화장이 퍽 문제되어 얼빼기말도 하려면 천한화장이라고를 합니다。이러케 제삼자가 문제시하는화장법이란 대체로 서투른 화장이 아닐수없습니다。

화장이 구미의문화가 유입됨에따라서 부인들의 단장도차차 만히소화되어 볼수잇습니다。화장에잇서서도 지금은단지 모방에끄치는것이아니라 훌륭히 자기를위한것을만들고 잇는것을볼수잇습니다。(여자들이 퍽이빼젓다)는 말들도 종종듯는데 그것은 일면여자의 체격이조와진것도 말할수잇는일이나 화장이 만히파게한다고도 생각합니다。사실이지 지금세상에서 나 건강을 강조하는때(?)이와가튼 화장들은 그자신이 자연스러운것이니까 여것으로써서 한화장이라 생각할수 잇습니다。

부자연 만일 부자연스럽게 보이다면 화장법을 의심해도 조흡니다。

화장은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자연스럽게 보이지 안흐면 안됩니다(부자연스럽다)는지 (부자연(不自然)부ㅡ)은 인상을줄수게되면 그화장은 낙제입니다。지금 다시

자기의 화장을 검토해볼 필요가 잇지 아니합니까。아주섯스면 합니다。참말 자연스러운 풋풋 눈화장을 하시면 합니다。

물분을 하야케 바르는일은 삼가 새빨가케칠하는 여자가 잇다면 그것은 무서운 풍경이 안될것입니다。피부에맛는 분을 「파우더」

엄마手帖

▲애기우먹이는법

무엇보고도 어린애들이 아

급할때소용되는 인공호흡법

만일을위해서아러둡시다

인공호흡을 시작해서 곳의식을 회복하엿스면 몰라도 그러치안흐면 네시간동안 계속하는것이 절대적인 의무가되어잇습니다。그만치 인공호흡을 하는것이 절대로

연습 파결의(決意)가필요합니다。물에빠진사람이 잇스면 먼저 곳으로도 운반하지말고 될수잇는데로 빨리 그장소에서 물을먹엇스면 물을뱃게하고 진사람의 배를 걸칩니다。손을 입에넣고 등을 눌러서 토하게합니다。그리고 꼿꼿한안장소에 뉘여서 여고로든 누입니다 한쪽손으로도 머리미를 바치게

이러 하고 급히 손을 들어서 [illegible] 주의할 점입니다。

코에 모래와먼지가들어 가지안케서조합니다。물에빠진사람의 [illegible] 다 [illegible]

팔을 곱으리지말고 [illegible] 눌러서 허리에 아래에다대고 손을 [illegible]

결국 두손을 [illegible] 오초동안에 일회 는 [illegible] 이러한 시간 은 저희하지 안호면 안됩 니다만 [illegible] 업슬때에 는 [illegible]

다시 는 [illegible] 다른 사람이 [illegible]

들창을열어노코 주므시려면?

여름에는 낫이 길고 밤이 짧으므로 [illegible] 수면부족이 되기쉽고 [illegible] 파로하기가 쉽습니다 [illegible]

★박게 서 안에들어다 창에다 『카―텐』을 치고 불을 꺼 [illegible] 다。엄마간 [illegible] 감기를 [illegible] 『까―텐』을 [illegible] 기가 [illegible]

★바람 이 업습니다。[illegible]

★보충 [illegible]

▲채소소독은?

채소 소독에는 『크로루카루키』를 씁니다만 [illegible]

물벼개에 물넛는법

물주머니에 물이나 어름 [illegible]

동시 에 [illegible]

사진은 오늘부터 시작된 경보(京報) 주최의 [illegible]

고양이

고양이가
쥐를 잡으려고
담벼에 숨엇서요
그렇지만
쥐는 나오지 안허요
그래도 고양이는
노리고 셋처요

(김 해 귄)

잇는웃물을 살려서쓰자!

손질만하면수도만못하지안타

(위생) 상 한때 조치 [illegible] 다고생각해오던 우물이 어떤에 방공과 용료 수면게를미아마 다시생각

하게된때에우물에대한 지식을 가지는것이 필요한줄 압니다。대개 우물은 하수(下水)가 지층을 여

京家常識

▲파리잡는종이는?

파리는 귀치 안흔존재이나 [illegible]

▲웃물을소독법

▲붕어가병들면

(물의) / (나쁜) / (물에) / (그외)

[illegible]

▲죽농중은이러케

[illegible]

二基 즈류폰아미드劑 리부론은으로 擊退하시요!

最近簇出하는 化學療法劑의 大部分은 [illegible] 腹痛。者의 個人的 體質에 따라 각금 腹痛、胃障碍、發熱、發疹等의 여러가지 惡性의 副作用을 하게됩니다。

그러나 『리부롬』은 最近의 化學界에 君臨한 『二基즈루폰아미드劑』로서 洗滌注射等의 手苦가 없고 全然 副作用이 업음으로 누구나 安心하고 服用할수잇으며 極히 短時日동안에 充分한 效果를 어들수잇서 容易하게 그 目的을 達成식힐수잇는 驚異的 化學治淋劑입니다。

急・慢性淋疾의 患者를 直接臨床治療에 休驗한 醫家諸賢이 推奬하는 純國產 즈루폰아미드劑인 『리부론』을 꼭 試用하여 보십시요。반드시 여러분의 期待에 어김없는 滿足한 結果를 보실것입니다。

適應症
急・慢性淋疾、丹毒、產褥熱、敗血症、扁桃腺炎、中耳炎、子宮內膜炎、齒槽漏濃、膀胱炎、其他化膿性諸疾患。

包裝 二〇錠、五〇錠 粉末 二五瓦、一〇〇瓦、五〇〇瓦

東京 日本藥品株式會社
京城府南大門通二丁目
總發賣元 (株式) 新井藥房
淸津府浦項
北鮮代理店 (株式) 淸津新井藥房